

국보해설(國寶解說)

해인사장경판고 (海印寺藏經板庫)

國寶 第 32號

치로(治爐)에서부터 끼게 되는 가야산(伽倻山)의 계류(溪流)는 가야면소(伽倻面所)를 지나 언덕백이에 히끗히끗 늘어선 사기공장(沙器工場)을 벗어나면 깊은 송림계산(松林溪山)이 된다. 낮에도 어둡고 언제나 서늘한 계류(溪流)는 사문(寺門)에 이르기까지 십리길을 줄곧 계속된다. 여기까지는 어디서나 물 소리가 들리고 계간(鷄澗)은 사문(寺門)을 왼편으로 돌아 용담선원(龍塔禪院) 앞으로 해서 인적(人跡) 드문 상봉(上峰)으로 올라간다.

일주문(一柱門)인 사문(寺門)에서 안으로 봉황문(鳳凰門), 해탈문(解脫門), 구광루(九光樓), 대적광전(大寂光殿)이 배열(配列)되었으나 구광루(九光樓)와 대적광전(大寂光殿)은 사문(寺門)으로부터의 중심선(中心線)에서 약간이탈좌편(若干離脫左偏)하고 있다. 경판고(經板庫)는 대적광전(大寂光殿) 뒤 높은 석단(石壇)위에 있다고 상석(上石)기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서 가람배열(伽藍配列)은 끝나고 뒷담 밖은 장송(長松)이 울창(鬱蒼)한 산록(山麓)이 된다.

판고(板庫)는 남북(南北) 이고(二庫)와 동서(東西) 이재(二齋)의 사동(四棟)이고 주건물(主建物)은 남북(南北) 이고(二庫)이다. 남북(南北) 이고(二庫)에 팔만일천이백오십팔매(八萬一千二百五十八枚)의 경판(經板)이 분장(分藏)되어 있고 동서 이재(東西二齋)에는 사간잡판(寺刊雜板)이 분장(分藏)되어 있다.

남북 이고(南北二庫)(법보전, 수다라장)(法寶殿, 修多羅藏)는 모두 정십오(正十五), 측이간(側二間)에 훑쳐마, 우진각 지붕, 횡장(橫長)한 건물(建物)이다. 양동(兩棟)엔 다 중앙(中央)만을 제외(除外)한 전후(前後), 측간(側間)마다, 그것도 중방(中枋)을 분계(分界)로 상하(上下)에 이열(二列)의 살창(窓)이 백 둘러졌다고 살대를 총총히 끼운 투창(透窓)은 통풍(通風)과 채광기능(採光機能)을 아울러 갖추고 있다. 하방(下方)의 살창(窓)은 크기 때문에 벽면(壁面)이 없거나 매우 좁고 상방(上方)에는 살창(窓)이 작아진만큼의 간벽(間壁)이 백설(白雪)같은 회사벽(灰砂壁)을 이룬다. 이 흰벽(壁)은 간(間)마다 명백(明白)한 방각(方角)으로 끊겨지며 십오간전후 측면(十五間前後 側面)으로 계속(繼續)된

다. 남북 이고(南北 二庫)의 원경(遠景)은 실(實)로 이 살창(窓)과 흰벽(壁)이 백미(白眉)이다.



기둥은 모두 배흘림이 뚜렷하고 머리에는 익공(翼工)만을 꿰어 초(草)색임 (초공(草工) 또는 우설(牛舌))하였으며 그 위에 주두(柱頭)와 보머리를 얹었고 주간(株間)에는 화반(花盤)이나 접시받침이 없는 간단(簡單)한 외관(外觀)이다. 이간은 익공(翼工)짜임은 청평사회전문(淸平寺廻轉門) 그리고 동대(同代)의 몇몇 사제서원유구(私第書院遺構) 따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 집에서는 솟을 따위 익공(翼工)은 남고 전고식(南庫 前古式)은 편영(片影)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점(點). 면(面)에서는 우설(牛舌)로 되어 있으나 북고(北庫)의 전면(前面)에서는 초공(草工)으로 되어있고 후면(後面)은 양동(兩棟)이다. 막잘려있다.

이에 선행(先行)하는 주상 가구(柱上 架構)는 은해사 영산전(銀海寺 靈山殿)이나 송광사 국사전(松廣寺 國師殿), 하사당(下舍當)의 헛침자(침차(檐遮))에서 볼 수 있는 바이다.

내관(內觀)은 이중량(二重樑), 연등 천정(天井)이며 대량 종량간(大樑 宗樑間)의 동자주(童子柱)머리에는 소계(小界)고임한 침차를 꿰어 그것이 안쪽에는 보아지도록 되어있다. 종량상대공(宗樑上臺工)은 머리에 약화(略化)된 초각화반(初刻花盤)(나비형(形))을 가졌고 종량(宗樑)위에 종도리(宗道里)를 마주떠받는 솟을 합장(合掌)을 가지고 있음은 전언(前言)한 바와 같다. 대공(臺工) 머리의 초각화반(草刻花盤)은 부석사무량수전(浮石寺無量壽殿)이나 은해사영산전(銀海寺靈山殿)의 그것과 거의 동형(同形)이며 동대(同代)의 소건축(小建築)에서는 더러 볼 수 있는 것이다. 솟을 합장(合掌)의 유존대공(遺存臺工)의 간화(簡化)된 화반초각(花盤草刻) 그리고 무위사 극락전(無爲寺 極樂殿)이나 송광사(松廣寺)의 몇 건물(建物)에서와 흡사(恰似)한 남고(南庫)의 익공 우설(翼工 牛舌)따위는 이들 판고(板庫)가 전기(前記) 몇 건물(建物)과 많이 상통(相通)하나 솟을 가진 점(點) 같은데서는 오히려 고격(古格)을 지닌것이라 하겠다. 형식계열(形式系列)로서는 가구상(架構上)의 구작생략화반반각(句作省略花盤半刻)에서의 장식요소(裝飾要素)의 배제(排除)로써 그것이 익공(翼工)집으로서의 당연(當然)한 것이지만 주심존형식(柱心包形式)의 잔영(殘影)이 고수(固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판고(板庫)가 다 같

은 익공(翼工)집이고 역시 익공계(翼工系)인 맹씨행단(孟氏杏壇)과는 건립(建立) 및 중수(重修)에 있어 단육년의차(單六年의差)가 있을뿐인 점(點)은 주목(注目)하고 싶은 바이다. 이와 같은 복잡(復雜)함의 생략(省略)은 이 건물(建物)이 하나의 창고(倉庫)인바를 뚜렷이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조 성종(李朝 成宗) 一九年(一四八八)건립(建立) 천계(天啓)二年(二六二二)에서 동사년(同四年)(一六二四)에 걸쳐 중수(重修)되었음이 一九八五年 보수시(補修時)에 밝혀졌고 남고 중앙간 종도리(南庫 中央間 宗道理) 下 에서는 천계(天啓)二年 중수기(重修記)와 함께 광해군과(光海君) 동비(同妣)의 발원명의(發願命衣)가 동시에 발견(同時에 發見)되어 중요명식자료(重要明飾資料)를 새로 첨가(添加)하였다.

표창(表彰)받은 얼굴

(박 헌 봉 씨(朴憲鳳氏))

박(朴) 헌봉씨(憲鳳氏)는 1906년에 경상남도(慶尙南道) 하동군(河東郡) 옥종면(玉宗面) 청용리(靑龍里)에서 태어나 1921년 서울 한성강습소(漢城講習所) 보통과(普通科)를 수업(修業)하고 1923년 중등학교(中東學校) 고등과(高等科) 3부(部)를 졸업(卒業)하였다.

뜻한 바 있어 17세(歲) 시(時)부터 진주(晉州)에서 김경천옹(金經天翁)을 사사(師事)하여 2년간(年間) 가야금(伽倻琴)을 연구(研究)하였다. 씨(氏)가 우리 나라 민속악(民俗樂) 연구(研究)에 일생(一生)을 바치게 된 동기(動機)는 여기에서부터 짝 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후(其後) 약관(若冠) 28세(歲) 시(時)에 진주음률연구회장(晉州音律研究會長) 직(職)을 맡음을 필두(筆頭)로 하여 서울정악전습소(正樂傳習所)에서 육개월간(六個月間) 정악연구(正樂研究), 이왕직(李王職) 아악부(雅樂部)에서 삼개월간(三個月間) 아악풍류연구(雅樂風流研究),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에서 이년간(二年間) 기악(器樂) 및 창악연구(唱樂研究), 조선음악협회(朝鮮音樂協會) 조선악부(朝鮮樂部) 이사(理事), 해방(解放) 후(後)로는 국악건설본부(國樂建設本部) 부위원장(副委員長), 서울대학교(大學校) 사범대학(師範大學)에서 국악강의(國樂講義), 국악원장(國樂院長), 동국대학(東國大學)에서 국악강의(國樂講義), 서울특별시(特別市) 문화위원(文化委員) 겸(兼) 시공관(市公館) 운영위원(運營委員), 문교부(文敎部) 예술위원(藝術委員), 대한국악원장(大韓國樂院長), 국악예술학교(國樂藝術學校) 교장(校長),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한국국악협회(韓國國樂協會) 이사장(理事長),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韓國藝術文化團體總聯合會) 부이사장(副理事長), 등(等)의 경력(經歷)을 전전(轉轉)하면서 갖은 악조건(惡條件) 밑에서 남도창악(南道唱樂) 경서민요(京西民謠) 및 일반(一般) 기악(器樂)에 이르기까지 민족음악(民族音樂)의 영예(榮譽)와 그 원류(源流)의 보존유지(保存維持)에 힘쓴 바 지대(至大)하였다.

씨(氏)가 민속음악(民俗音樂)의 총본산(總本山)인 국악원(國樂院)을 창설(創設)하여 국악건설(國樂建設)의 조직적(組織的)인 체계(體系)를 확립(確立)하였다든가, 전국농악대회(全國農樂大會)를 개최(開催)하여 농민음악발전(農民音樂發展)에 기여(寄與)하였다든가, 이회(二回)에 걸쳐 전국(全國)의 순수(純粹)한 향토민요(鄉土民謠)를 수집(蒐集)하여 300여(餘) 곡(曲)을 정리연구(整理研究)하여 작곡상(作曲上) 활용(活用)케 하고 또한 국악관현악단(國樂管絃樂團)을 창단(創團)하여 우리의 고유민속음악(固有民俗音樂)을 세계적(世界的) 수준향상(水準向上)에 기여(寄與)함에 실질적(實質的)인 공헌(貢獻)을 남겼다는 등등(等等) 씨(氏)의 민속악(民俗樂)에 대(對)한 공헌(貢獻)은 우리의 민속악사(民俗樂史) 발전(發展)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씨(氏)는 현재(現在) 자신(自身)이 설립(設立)한 국악예술학교(國樂藝術學校) 교장(校長)으로서 후대(後代) 육성(育成)에 힘쓰고 있으며, 1965년도(年度) 문화재(文化財) 보존공로자(保存功勞者)로 표창(表彰)받은 바도 있고 第一回 5·16민족상(民族賞) 수상후보자(受賞候補者)로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으로부터 추천(推薦)받은 바도 있다.



저서(著書) 및 연구발표 논문(研究發表 論文)

저서(著書)

一, 창악정강(唱樂精綱)(관소리 가사전집(歌辭全集)) 二, 신작가사(新作歌詞)…철
인가(哲人歌), 권농가(勸農歌) 三, 국악(國樂)의 노래 꽃타령 등의 십수편(十數篇)과
민족정서(民族情緒)의 역사적(歷史的) 전통(傳統)의 총집결(總集結) 내지(乃至) 그
정리(整理)로 이룩된 민속(民俗) 연례가(宴禮歌)를 작사(作詞)

연구발표 논문(研究發表 論文)

一, 민요유래론(民謠由來論) 二, 민요가사론(民謠歌詞論) 三, 민요태해론(民謠解
說論)